

전남

전남 최고 소득작물은 '시설고추'

농진청, 57개 품목 분석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시설재배는 시설고추, 노지재배는 복숭아 재배농가가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농촌진흥청 2008년산 전남농산물 57개 품목의 10a(300평)당 소득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설재배에서는 시설고추가 1천82만1천566원, 노지재배에서는 복숭아가 465만5천253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했다.

또한 시설재배에서는 시설가지(1천10만4천897원), 시설호박(999만3천356원), 시설장미(954만4천144원), 오이(축성)(929만8천248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10a당 1,082만원... 가지·호박·장미·오이 순

노지재배는 복숭아 465만원·무화과 433만원

노지재배에서는 복숭아에 이어 무화과(433만6천593원), 구기자(402만4천10원), 노지포도(367만2천143원), 참다래(363만6천927원) 등 순이었다.

지난 2007년은 10a당 파프리카(착색단고추)가 1천428만1천398원으로 가장 소득이 높았으나 시설오이, 시설장미, 시설고추(억제), 시설딸기(반축성)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오이(축성) 시설재배는 2006년 1천356만8천661원, 2007년 1천208만2천557원, 2008년 929만8천248원으로

2배가량 상승했다. 이러한 소득상승은 가격 호조로 수확기간이 평년보다 한달 이상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소득조사결과가 작물마다 수확기간 등이 달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생산성과 토지총량 외에도 2008년에는 627만8천813원으로 대폭 하락했다. 이는 난방비 증가와 함께 수출부진, 가격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전체수입에서 경영비율 2008년 15.4%로 폭 떨어졌다.

반면 2008년 시설고추는 2007년 530만8천259원에서 1천82만1천566원으로, 시설가지 역시 2007년 556만715원, 2008년 1천10만4천897원으로

2배가량 상승했다. 이러한 소득상승은 가격 호조로 수확기간이 평년보다 한달 이상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소득조사결과가 작물마다 수확기간 등이 달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생산성과 토지총량 외에도 2008년에는 627만8천813원으로 대폭 하락했다. 이는 난방비 증가와 함께 수출부진, 가격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전체수입에서 경영비율 2008년 15.4%로 폭 떨어졌다.

반면 2008년 시설고추는 2007년 530만8천259원에서 1천82만1천566원으로, 시설가지 역시 2007년 556만715원, 2008년 1천10만4천897원으로

해남 농산물 친환경 대상

해남군은 '2009 대한민국 친환경대상'에서 친환경 농산물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은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추진위원회 및 환경미디어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후원하며, 전·현직 장관급 지명인사 28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전국 최대의 경지면적을 보유한 해남군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전국 최대 친환경 인증면적(1만1천3ha)을 획득하고 녹비종자 지원사업, 토양개량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유기농 전문단지인 ▲친환경 농업단지 (7천383ha) 조성 ▲친환경 실천농가 인증지원(300건) ▲각종 농기계·시설·자재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열의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군은 전했다.

김홍식 해남군수는 "해남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농촌체험하며 일손도 도와요. 고향생각주부모임 전남도지회(회장 유영란) 회원과 다문화여성 등 180여명은 11일 담양군 대덕면 저삼마을과 시목마을에서 친환경(농협전남본부 제공)

'소박한 차꽃 축제' 오세요

14일 보성 양동마을

열매와 꽃이 같은 시기에 핀다 해서 '실화상봉수'(實花相逢樹)로 불리는 차꽃(사진)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보성에서 열린다. 차꽃 축제는 다른 축제처럼 유명한 가수 공연이나 오락하고 화려한 무대는 없다. 오로지 마을 주민과 차를 사랑하는 애호가들의 열정이 만든 차 문화 행사이다.

이런 차꽃 축제는 보성차생산지 조합 등 차 관련 단체가 협력한 지역 행사로 차꽃 따기, 염색체험 등 체험행사와 세계 차 및 다도구 전시 등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차꽃 축제는 다른 축제처럼 유명한 가수 공연이나 오락하고 화려한 무대는 없다. 오로지 마을 주민과 차를 사랑하는 애호가들의 열정이 만든 차 문화 행사이다.



차꽃은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꽃을 피우며 11월 초에 절정을 이룬다. 흰빛을 띤 다섯 장의 차꽃잎은 녹차가 지닌 고(苦=쓰고,甘=달고), 산(酸=신), 화(鹹=짜고), 상(澁=떫은)의 다섯 가지 인생 맛을 뜻하기도 한다.

흑동동주·두부... '검정 웰빙' 떴다

장성군 검정식품 이용 가능성 음식 개발

최근 웰빙열풍에 따라 컬러식품이 인기를 끌며 장성군이 서리태 콩 등 검정식품을 다양한 기능성 음식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장성군 북일면 문암흑작물반(반장 김희삼)은 최근 광양마을 회관에서 서리태 콩, 쥐눈이 콩 등 검정식품을 이용해 만든 검정콩 두부, 흑동동주, 시루떡 등 총 12가지 기능성 식품 시식회를 가졌다. 작목반은 이번 시식회를 시작으로

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기능성 검정식품을 가공 판매할 예정이다. 또 종자과중에서부터 비료주기, 수확, 가공 등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코스를 개발해 도시민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작목반은 올해 검정식품 5종을 32a를 생산, 검정참깨와 검정들깨를 판매 완료했다. 현재 1kg단위로 포장한 서리태

콩(5천원), 쥐눈이콩(4천원), 활흑미(4천원) 등도 도시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올해 시작한 검정식품 특화사업 6개년 계획에 따라 가공 시설을 준비하고 재배면적도 현재 13ha에서 2014년까지 50ha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북일면 전체 농가의 참여를 통해 단순 생산이 아닌 검정식품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6차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희기자 yongho@

'우리밀' 겨울철 소득작목 만든다

담양군 재배기술교육

담양군이 '우리 밀'을 겨울철 특산물로 육성한다. 담양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우리 밀 농업인 연구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밀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우리 밀 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품종선택부터 품종 특성, 재배 단계별 재배관리 방법 등 고품질 우리 밀 재배를 위한 맞춤교육이 이뤄졌다. 담

양군은 지난 1월 35 농가를 중심으로 '우리 밀 농업인연구회'를 조직, 구례군 우리밀농조합을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밀 재배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담양군은 식생활 변화에 따른 보리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매가격 하락 등으로 작목전환이 시급함에 따라 겨울철 소득작목으로 '우리밀'을 선택했다. 우리밀은 수입밀보다 인체 면적이 2배나 높고 향산화작용을 통한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 창단

지역사회에 사랑·봉사 실천

포스코 광양제철과 외주 파트너사가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포스코 패밀리 광양봉사단'을 창단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은 12일 광양 커뮤니티센터에서 조별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해 이성운 광양시장 등 주요 내빈과 광양제철소 및 출자사(14개사), 외주 파트너사(45개사), 우수공급사(6개사) 임직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봉사단 창단의식을 시작으로 사회공헌 협약식, 사진 전시회, 감장김치 담그기 행사로 이어졌다. 창단식 끝난 후 포스코 패밀리사 CEO와 4천여 명의 포스코 패밀리는 광양시 전 지역에서 거리 곳곳과 공원을 청소하고, 공동놀이터를 보수하는 등 대대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별 광양제철소장은 축사를 통해 "27년의 광양제철소의 눈부신 발전의 역사는 출자사, 외주 파트너사, 우수공급사가 늘 함께 해왔다"며 "이제 그러한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과 봉사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장흥서초교 24회 졸업생 40명

모교에 1천만원 장학금 전달



장흥서초등학교 24회 졸업생 40명은 모교에 1천만원 장학금을 모교에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신성한 화제가 되고 있다.

장흥서초등학교 24회(회장 박연석) 졸업생 40명은 최근 모교를 방문,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의 후생분야에 써달라며 문재일 교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지난 1971년 졸업한 이들은 1박2일 일정으로 모교에서 당시 가르쳤던 교사 두분을 초청해 체육행사를 치르는데 이어 이튿날 천관산 등반행사까지 가졌다. 24회 졸업생들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처에서 거주하는 동창들을 대상으로 30년전에 동창회를 결성, 현재까지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장흥=김용희기자 kykim@

Table with multiple columns for regional statistics, including county names, population, and various metrics. Includes a header for '공인중개사: 강영희' and 'K (주)국민법률경매'.